



성기영 아가씨 | 작가, 작곡가

| 초월 지수

교육 현장에서는 학습 능력 지표로 흔히 지능 지수(I.Q. Intelligence Quotient)를 활용합니다. 그렇지만 지능 지수가 높다고 해서 꼭 학습 결과가 좋은 것만은 아니지요. 이를 보완할 감성 지수(E.Q. Emotional Quotient)라는 개념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좌절하지 않는 태도, 타인에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학업 성취에 있어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그 밖에도 심리학자와 저술가들은 각종 지수를 고안해냅니다. 한때 책의 제목 뒤에 Q자를 붙이는 게 출판계의 유행이었다고 하네요. 어떤 부모가 현명한 부모인가를 따져보는 ‘부모 지수’, 유명인들의 성공 요인을 탐구하는 ‘성공 지수’에 이어 ‘카리스마 지수’라는 말까지 나온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신앙과 믿음의 단계를 측정하는 ‘믿음 지수’에 대해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느님께서 인간이 수치화한 모든 잣대와 전혀 다른, 믿음의 척도로 인간을 평가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로 말미암아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에도 분명히 단계와 깊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리저리 궁리를 해 보아도, 믿음 지수의 기준을 세우기는 너무나 어렵군요. 이를테면 ‘순수한 사랑’, ‘진실한 마음’, ‘순종’, 또는 ‘희생’의 단계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을까요? 더욱이 믿음의 주체가 오로지 인간이라면 어떤 분석

을 시도해 볼 수도 있겠지만, 거기 하느님의 부르심이 개입함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담론은 무의미해지고 맙니다. 하느님은 인간이 분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이지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과학의 시대라지만, 세상에는 인간의 지력으로 결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무수히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끝없이 팽창하고 있는 우주가 망망대해라면, 현재 인간이 가진 지식은 그 바닷가의 모래알 하나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잘했거나 큰 공을 세워서가 아니라, 그저 은총의 빛에 이끌려 믿음의 길 위에 섰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인간의 모든 능력을 벗어난 초월적인 존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 지수를 넘어 ‘초월 지수(T.Q. Transcendental Quotient)’라는 개념만이 떠오르는군요. 물론 알량한 제 지력으로 그 기준을 세우는 일은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4차원의 시공간을 무한대로 확장한 무한 차원의 존재. 우주의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며 알파이며 오메가이신 분.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무한 사랑이신 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온 세상을 품은 무한대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불가사의한 믿음의 세계에 초대받았음에 그저 기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제들도 고해성사를 보나요?

사제들도 사람인데 어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제들도 사제들끼리 고해성사를 주고받습니다. 고해소는 하느님과 교회 공동체의 대리자인 사제와 함께, 한 개인이 하느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느님을 얼마나 느끼고 살았는지, 하느님과 얼마나 멀리 있었는지를 점검해 보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생기 있게 했고, 무엇이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하느님께서 고해소에 오는 모든 이를 용서해 주려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글 「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딸 발행